

리캐스트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급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

마쓰요 노조미 (나고야외국어대학)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이라는 해외의 교실환경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급 수준의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리캐스트를 부여했을 때의 오용 정정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실험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리캐스트를 계속 주었을 경우의 오용 정정 효과에 대해, 개인의 성장을 상세하게 관찰하며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리캐스트를 통한 오용 정정 효과가 확인된 경우, 교실 환경 및 자연 습득 환경에서의 접촉 장면의 오용 정정 피드백(이하 FB) 방법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선행 연구

리캐스트의 특징으로 (1) 부정 증거와 긍정 증거의 양쪽 모두를 주는 점, (2)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 점, 그로 인해 (3)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 (4) 학습자의 정의(情意)적인 면에 배려하고 있는 점,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5)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FB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점이 많아 주목받고 있는 리캐스트이지만, 리캐스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1) 단기간 조사가 많다는 점, (2)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적은 점, (3)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태스크를 실시하게 하는 조사가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캐주얼한 자유 회화를 실시해, 사례연구법을 통한 장기적인 리캐스트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3. 연구 과제

연구 과제(RQ)는 다음의 4가지이다.

RQ1: 리캐스트를 장기간 실시했을 경우 오용 정정 효과는 있는가.

RQ2: 효과가 있다면, 어떤 항목(어휘, 문법, 음성, 표현)에 대해 효과가 있는가.

RQ3: 어떤 항목에 대해 효과가 없는가.

RQ4: 리캐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4. 조사

4.1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미국 주립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샬럿캠퍼스 출신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 2명(S1과 S2)이다. S1은 2020년 5월에 학부를 졸업했으며 2021년 가을부터 JET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S2는 2020년 시점에 학부 3학년으로, 일본어능력시험 N4에 합격했으며 2021년부터 일본으로 교환학생 유학을 희망하고 있다.

4.2 조사방법

자유회화, 테스트(정오 판정과 오용 정정), 팔로업 인터뷰를 실시했다. 자유 회화는 2020년

6월부터 10월에 2주에 한 번, 한 번에 10분 정도씩 실시했다. 필자와 일대일 온라인 자유 회화에서, 올바르게 않은 표현이 나타나면 리캐스트로 돌려주도록 했다. 데이터는 우사미(2019)에 준하여 문자화했다. 테스트는 자유 회화에 나타난 학습자의 오용을 빈도가 높은 것에서 20개를 고르고, 더미로 알맞은 문장을 5개 더해서 총 25개의 정오 문제를 만들었다. 이것을 문자로 제시한 경우와 음성으로 제시한 경우에, 오용이라는 판정과 자기 정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팔로업 인터뷰에서는 자유 회화에 대한 감상과 FB에 관한 믿음, 리캐스트에 대한 인식 유무 등을 질문했다.

4.3 분석 방법

자유 회화는 Lyster & Ranta(1997)를 참고로 분류하여 오용 항목별 결과를 확인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리캐스트 직후의 업테이크만을 확인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캐스트 직후 뿐 아니라, 그 후의 회화에서 수정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자유 회화와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고 팔로업 인터뷰 결과와 대조해 고찰하였다.

5. 결과·고찰

5.1 S1

RQ1에 대한 답변으로, 리캐스트의 장기적인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자유 회화에서는 리캐스트를 부여한 오용이 그 후의 대화에서 수정된 예는 없었다. 조사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같은 어휘나 문법 등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자유 회화 내에서 수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문자를 통한 테스트와 음성을 통한 테스트 모두에서 올바르게 자기 정정이 가능했던 오용은 한 가지 뿐이어서, 음성이든 문자든 오용을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12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테스트 직후 업테이크가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초급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나오는 오용은, 직후에 업테이크가 있어도 테스트에서 자기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된 중간언어를 바꾸는 데는 리캐스트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Nicholas, Lightbown & Spada(200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되었다.

S1에 대해서는 리캐스트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RQ2와 RQ3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

RQ4에 관해서는 우선 리캐스트와 명시적 정정을 비교하고, 명시적 정정, 특히 메타언어 FB가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있다. Kim(2016)은 리캐스트와 메타언어 FB의 학습 효과는 동등하다고 하고 있지만, 수치적인 학습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FB 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동기 부여 등의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S1은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리캐스트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자기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다 상급 일본어 학습자라면 인식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레벨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초급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리캐스트 연구는 존재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스피킹 능력을 측정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는 문화가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인터뷰에서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 삼겠다.

5.2 S2

RQ1에 대해서는 자유 회화와 테스트 결과에 리캐스트 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자유 회화에서 리캐스트를 준 오용이 해당 회화 안에서 수정된 예가 4개, 후일 대화에서도 수정된 예가 4개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를 통한 테스트와 음성을 통한 테스트 양쪽 모두에서 올바르게 자기 정정이 가능했던 예가 14개로 약 70%이다. 14개 문제 중 7개는 자유 회화 내에서 직후 업테이크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S2가 직후 업테이크를 통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문자에서도 음성에서도 오용을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2개였고, 문자에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음성에서는 오용을 인식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는 예가 적기 때문에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이러한 패턴을 수집해 나감으로써 향후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RQ2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휘이다. 자유 회화 내에서 수정되었던 오용은 모두 어휘의 오용이며, 어휘 오용에 대한 리캐스트 14개의 예 중 12개에서 직후 업테이크가 일어났다. 리캐스트는 인풋 제시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직후 업테이크율이 높은 것은, S2가 리캐스트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테스트에서 문자와 음성 양쪽에서 자기 정정을 할 수 있었던 14개 문제 중 어휘가 90%였다는 점도 생각하면, 어휘에 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Q3에 대해서는 음성(장음, 발음, 축음)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우선, 음성의 오용 자체가 적고, 전체 93개의 오용 중 음성 오용이 6개, 리캐스트를 받은 예는 2개뿐이었던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음성의 오용에 대한 리캐스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음이나 특수박을 사용해야 하는 스피킹 태스크를 준비하고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RQ4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리캐스트는 좋은 인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2는 FB의 존재를 알고 있고 자유 회화 내에서 FB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데, 리캐스트를 통해 오용을 지적받았다기보다는, 대체 표현을 친절하게 제시받은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명시적 정정처럼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멈추고 학습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주의를, 형식에 맞는 것은 분명하나 회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부족해지는 데 반해, 리캐스트와 같은 정의면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학습에 있어서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거나 동기부여 유지를 돕는 등, 학습자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5.3 S1과 S2를 비교한 고찰

S1에는 리캐스트의 효과를 별로 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해, S2는 리캐스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와 같이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우선, 일본어에 접하는 기회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S1은 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어 수업을 받지 않았던 것에 비해, S2는 2020년 8월 하순부터 일본어 수업을 이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후반의 자유 회화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대화 속에서 중시했던 측면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1은 의미를 중시해, 문맥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전달함으로써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S2는 문법을 중시하여 형식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에 대한 높은 의식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Lyster & Mori, 2006; Nabei & Swain, 2002). 또 FB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S1은 메타언어 FB를 선호한다고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학습자 믿음이나, 문화권에 따라 FB를 주는 방법의 차이가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직후 업테이크율을 보면, S1은 10.3%였던 것에 비해 S2는

42.1%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2015)는 학습자의 발화 후에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끝낸 경우에는 수정이 없었다고 했으며, 리캐스트 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반응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조사 참여 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S1이 자유 회화에 참여한 기간은 S2보다 2개월 짧았기 때문에, 받은 리캐스트 수에도 차이가 있었다. 보다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한 S2에 효과가 나타난 것은, 장기간 리캐스트를 계속 주는 것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결론적으로 S1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반면, S2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S2의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던 것은 어휘, 볼 수 없었던 것은 음성의 오용이었다. 2명 모두, 자유 회화 속에서 오용 정정을 받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2명의 결과에 차이가 생긴 원인으로서는 일본어를 접하는 기회의 유무, 회화 속에서의 형식에 대한 의식의 높고 낮음, 리캐스트를 인식하게 되는 시간의 유무, 조사 참여 기간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7. 앞으로의 과제

우선 RQ4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애매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2명으로 적었기에 일반화는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보다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장기간의 조사를 위해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으며, 조건을 더욱 통제된 실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자유 회화에서는 같은 오용을 다시 아웃풋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험 액티비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1회의 자유 회화가 10분간으로 짧고, 합계시간은 Lyster & Saito(2010)의 규정에 따르면 단기에서 중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회화를 길게 하거나 빈도를 높여야 한다.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답변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파일럿 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간제한을 두어 통제를 실시한다. 또 이번에는 팔로업 인터뷰에서 자유 회화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지만, 테스트 답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분석 방법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우사미(2019)를 기초로 했지만, 학습자의 발화를 한자와 가타카나를 섞어서 나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자화 방법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려해 나가고 싶은 것으로는, 부정확한 형식이 정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캐스트의 효과가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오용 정정을 하면 좋을지 라는 과제를 들 수 있다. 또, 리캐스트를 주는 것을 사전에 학습자에게 알렸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흥미가 있다. 더불어 학습자의 발화 하나에 복수의 오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리캐스트를 통한 정정을 모든 오용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좁혀서 정정하는지에 따른 학습 효과의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고 싶다.

참고 문헌

당일 발표용 슬라이드에 게재

(번역책임자:김예진)